

이종철·김영옥씨 가산 학술상 수상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제5회 가산(伽山)학술상에 서울대학원 강사인 이종철씨(인도철학 전공)와 고려대 강사인 김영옥씨(禪사상 전공)가 선정됐다.

'12處考'란 연구 주제로 수상자에 선정된 이종철씨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 동경대 인도철학과에서 '禪學의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도 마이스르대 연구원을 역임했다. 김영옥씨는 1981년생으로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壇經의 선사상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佛宗과 高宗의 논쟁』이란 연구 주제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이종철씨 ◇김영옥씨

지난 91년 연구원 개원과 함께 제정, 91년 6월 제1회 가산상이 시상된 후 제5회 제가 되는 가산학술상은 연구의 전문성·특성성, 한국 불교학계의 기여 예상도, 가산연구프로젝트와의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한편 연구원은 95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한국불교사상대계(정5권)> 편찬, 본격 원전번역을 목표로 하는 <가산불교학술총서> 간행사업을 연구비 지원분야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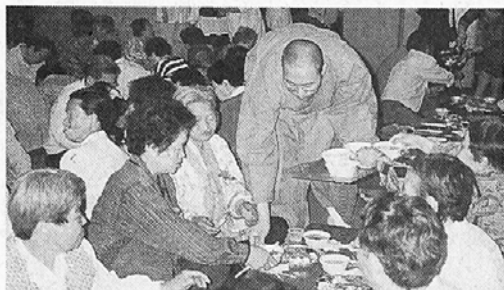
“불교 복지 전문인 양성 급선무”

‘지자시대 사회복지’ 세미나 지역단체와 긴밀한 협조 중요

지방화시대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사회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지난 9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주)이 법인 설립을 계기로 불교계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체계화 정립을 위해 ‘지방화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복지’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연 이번 세미나는 종교계 사회복지의 주체자로서 불교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교계 사설단체 운영자들의 연대모임의 장을 제공, 사회복지사업의 현안문제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종삼교수(송실대·한국사회복지학회장)는 ‘지자시대에 따른 민간복지 기관으로서의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란 발표문을 통해, ‘지방



◇지방화시대를 맞아 불교사회복지사업이 보다 적극적 조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사진은 김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

자치시대의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기존 지역사회나 민간복지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복되는 일을 피하면서 새로이 유발되는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공동모금법이 통과되어 공동모금위원회가 구성될 때 종교지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교계 자원의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정학교수(국립사회복지연구원)는 ‘불교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인적·물적·동기적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와 전문가 부족’이라며, ‘복지전문인력 확보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 연구기관을 조속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승가대학에 불교사회복지대학원을 조속히 설립, 불교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현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복지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지적됐다. 또한 복지사업을 위한 경제적 자원동원의 방법으로 사찰시설의 활용, 후원금 모금활동, 전문가 양성을 통한 후일자 개발과 관리 및 후일자 결연사업 등이 제시됐다.

김재경 기자

“지자 선거후 사찰 문화재 훼손”

불교환경교육원 심포지움서, 무분별 개발 대응책 촉구

27일 지자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점지함을 명분으로 한 골프장,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휴양 편의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설로 국립공원 내의 사찰환경과 불교문화재가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 등 환경문제가 불교계의 직접적인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지난 8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제23회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는 ‘지방자치시대의 국립공원관리와 불교

환경운동’ 심포지움을 열고 지자선거 이후 야기될 지방화시대 환경문제에 대비하는 불교계의 대처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동국대 오홍석교수(지역환경연구소장)는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과 불교의 환경운동’이란 발표문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열악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 △자연 및 문화유산의 훼손우려 △인구 과밀·과소문제로 인한 지역격차의 표출 등을 지적하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일체불이

(一切不二)의 공존시스템으로 보는 불교사상이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사찰이 청정한 자연, 전통문화의 유적지라는 측면에서 도시주변의 그린벨트처럼 최우선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보전이 강화돼야 한다’며, ‘불교계는 지자체 단위별로 신도회를 조직하고 환경운동본부 및 사업별 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대적 변천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무모한 개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도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과)와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가 ‘국립공원관리와 불교의 사찰보존’, ‘국립공원보존의 실태와 생물종 다양성’을 각각 발표했다.

집에 불상 모시고 고기 먹는데...

문 집에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해 네문 불보살을 모셔놓고 조식예불, 사시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이 건설업이라 회식자리가 많고 그래서 가끔 고기를 먹게 됩니다. 조식예불은 천수경·예불문·정근·빈아심경 순으로 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김주복·인천시 남동구 민수5동)

답 부처님께서는 생명존중의 뜻에서 육식을 금하셨습니다. 비구 250여나 10중계, 48경계 중에서도 음주와 육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계율로 10선계를 강조한 십주비바사문에 의하면 불살생의 조항은 있어도 육식에 관한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라게 10선계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불살생을 모셔놓고 조식예불 하시면서 가끔 육식을 하게 된다고 고민하시는데 딱히 그래야 할 까닭은 없다고 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어느 것 하나 생명 아닌 게 없는데 그렇다면 산다는 것 자체가 살생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데 따라

장소에 관계없이 늘 예불하는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기생활의 질서에 따라 편리한 시간, 편리한 장소에서 조용히 자신을 관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남전스님이 고양이 목 벤 뜻은

문 ‘남전참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남전스님께서는 동당 서당의 학인들이 분별심으로 소유에 집착하기가 경악하시라는 뜻에서 살생을 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정효선·서울 동대문구 장인동)

답 거기에는 세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양이를 죽인 게 옳냐, 살려줘야 옳냐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조주스님이 왜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갔느냐는 것이며, 셋째는 남전스님이 왜 불살생의 계율을 어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가 이 세 관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말을 함이 없이 대답해야 하겠다고 남의 흉내를 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절로 우리나라다운 함이 없이 대답을 할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세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한 대승선승에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수많은 생명이 죽고 손을 씻는 동작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씻겨져 나갑니다. 또 육식을 않고 채식만 한다해도 그 또한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라는 마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먹고 먹히는 연쇄고리로 되어 있는 가운데 생명 존중, 생명체에 대한 경의심을 잃지 않게 중요하합니다.

따라서 일체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되면 모든 생명체를 천도한다는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그런 마음이면 소 한마리를 그대로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을 내 몸같이 여기라는 뜻에서 살생을 금하셨지 먹고 사는 자연의 질서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령 취미삼아 살생을 한다거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살생하는 것은 안되겠지요.

또 재가신도로서 가정에 불상을 모셔놓는 일에 대해,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이왕 모셔놓고 오랫동안 예불을 해 오셨다니 그대로 해 나가셔야 하겠지요. 하지만 예불이란 밖으로 형상에 대고 비는 게 아니라 자성체에 일심으로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에 편만한 법신불, 그리고 나를 형성케한 자성부처 지리는 본래 틀이 아니고 하나로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공(空)에 귀명하는 게 예불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불의 형식이나 시간·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는 중에 언제나 때와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식의 대답을 따라하면 큰 허물이 될 것이고요. 남이 안보는데서 물건 하나 슬쩍했는데 뭘 알겠느냐 싶겠지만 제 마음이 알고 있으니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체는 한마음으로 돌아가니 부처 중생이 둘 아니게 공생·공용·공체·공식하는데 어떻게 모른다 하겠습니까.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병은 마음 공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는 요리조리 사방분별하고 빠져나갈 공리만을 찾는 사람에겐 어렵습니다. 그러가지고야 수없이 닦아오는 문제들을 어느때 풀 수 있었으며 우주 삼라만상을 어찌 다 섭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생사문제까지도 내려놓고 풀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지 두번 죽는게 아니니 풀려서 말고 두려워 하지 말고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산에 있을 때,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물이라도 채울 양으로 웅덩이에 엎드려는데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왜 이리도 험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또한 부처니라, 그 속에 부처가 있느니라’ 이리더란 말입니다.

부처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 마구니 소굴에도 들어가고 개구리도 되고 돼지도 개도 되느니 어떤 모습이 될 때를 부처라 하겠습니까?

남전참모를 공리하는 그것까지도 부처라 리에 놓고 관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통도사

禪夜夜梵鐘鳴
(선창야야법종명)
喚得心身十分清
(환득심신십분청)
檜樹蒼山勢頭
(회수창창산세안)
葉間風雨半天寒
(엽간풍우반천한)

老僧出定忘聲色
(노승출정망성색)
頭上光陰似轉丸
(두상광음사전환)
玉鏡涵空波不起
(옥경함공파불기)
煙絲繞坐雨初收
(연사회좌우초수)
牢籠泉象冷淪淪
(라룡계상냉륜륜)
揮斥乾坤放醉鋒
(휘척건곤방취봉)
(취척건곤방취봉)

범종각
紅塵謝絕心如水
(홍진사절심여수)
白水低回氣尚秋
(백수저회기상추)
靑山高風萬里
(취배산고풍만리)
鶴邊雲盡月千秋
(취배운진월천추)

선창(禪窓)에 밤마다 종소리 울리니
몸과 마음 아주 맑아지네
울창한 회나무 숲 안락한 산세 속
승 사이로 비바람 서늘하게 불어오네
선정(禪定)에서 깨어난 노승 성색(聲色)을 잊고
머리위에 광음은 총알같이 빠르네
맑은 물 잔잔히 흘러 파도

일체중생 해탈바라는 마음 담겨
일어나지 않고
자욱한 안개 속에 비가 개
이네
한 폭의 경치는 그림같은데
하늘과 땅 벌려진 모습 취한 눈에 어리는데
시끄러운 세속을 여의니 마

을 물처럼 맑고
맑은 물 흐르는 곳에 추상
같은 기운 감도네
영취산(靈鷲山) 높은 기슭
만리에 뻗고
하늘이 날아 구름 걸히니 천
추의 달이 밝네

범종각은 범종과 운
관, 목어, 법고(홍고)
등 사물(四物)을 장치해 둔 곳
이다. 조식 예불이나 법회때
는 염원과 원력이 담긴 것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범종은 지옥중생을 위해, 목어는 물집중생을 위해, 운관은 날짐승을 위해, 법고는 축생계의 짐승을 위해 두드리는 것이다. 일체중생의 완벽한 해탈을 희구하는 바램이 이 사물을 통해 표현되는 셈이다.
통도사의 범종각에 걸린 주련의 내용은 대단히 서정적이다. 중생고를 거두어내는 원력보다는 범종각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사찰에서의 서정성을 짚게 잡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내용은 범종 소리가 갖는 투명한 아름다움과 선정(禪定)을 대비시킨 것에서 불보중찰의 풍모와 통하는 그 무엇을 일깨워 준다.
(안동 경안중 교사)

「韓國放送廣告公社」는 보다 밝고 건장한 사회를 만들고자 「공익광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15년째 공익광고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를 치러 냅시다.

돈이나 선물을 주고 받는 타락선거, 학연이나 지연에 끌려 표를 몰아주는 투표, 아직도 이런 선거풍토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선거문화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능력이 있다면 돈이나 선물을 주지않아도 당선되는 깨끗한 선거—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한표로 다음세대에 깨끗한 선거풍토를 물려줍시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